

# 인간 사회 바꾸는 정보통신기술

글 | 손화철 \_ 한동대학교 전임강사 whachuls@hotmail.com

새로운 과학기술은 언제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함의를 가진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떤 기술이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는 다르다. 철학이 인간과 사회, 신과 자연, 나아가 세계 전체에 대해서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면,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생겨나는 변화들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글에서는 그 예의 하나로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철학적 함의들을 살펴보았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오랜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를 성급히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정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현실로 드러나는 생명공학의 이차적 영향력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 역시 문제다.

## 소통의 방법 · 내용까지도 바꾼 정보통신기술

현대기술의 또 다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어떤 철학적 함의를 가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소통’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종류의 소통을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신 · 전화로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술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소통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하게 한 소통은 교통수단이 가능하게 한 물리적 소통에 비해서도 그 규모나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소통 자체가 불필요해진 경우도 많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변화는 단순히 전에 두 달 걸려 주고받던 편지를 몇 초 만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소통의 방법이 바뀌면서, 소통의 내용도 바뀌게 된 것이다. 몇 년 전 한 통신회사의 기업 이미지 광고에 ‘휴대전화 문자기능을 없애주세요. 연인들이 다시 긴 편지를 쓰도록’이라는 카피가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이 카피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절에 긴 연애편지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연인만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은 그 방식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큰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미국의 미디어 사회학자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고 한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실사 같은 내용을 가진 정보라 하더라도, 그 양이 증가하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17세기의 천재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는 당대에 있던 책을 모두 읽었다고 전해진다. 물론 과장되었겠지만, 당시에 그가 볼 수 있던 책들의 수를 고려하면 너무 심한 과장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오늘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출판된 철학 서적을 다 읽으려 해도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 있는 모든 서적들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에 오르면 과연 학문세계는 17세기보다 더 깊고 오묘한 경지에 이를 것인가. 정보의 증가로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학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을 가능성은 많으나, 그 노력의 결과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 묻혀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원활한 소통은 더 나은 소통이라기보다는 다른 소통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가능성 자체가 과거의 소통을 규정하던 여러 가지 상황뿐 아니라 소통의 내용까지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현대과학기술 전반에도 상당부분 적용 가능하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혜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과거와 현재의 비교는 곤란하다. 과거의 연인들은 연애편지를 썼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현대의 연인들은 문자를 보내며 피상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억울할 일이다. 그들은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 복잡한 시스템 유지 위해 통제 불가피

소통의 문제는 민주주의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몇몇 나라의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투쟁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누구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보의 독점을 통한 일부 계층의 비민주적인 통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선언'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존 페리 발로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종, 경제적 능력, 군사적인 힘, 태어난 곳에 따른 기득권이나 편견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그리고 아무리 독특한 것이라도 자신의 믿음을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에 대해 침묵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듯 너무 많은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아지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부는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권력이 떠오른다. 바로 그 정보통신기술을 개발, 발전, 유지하는 기업과 국가들이다.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정보통신기술이 필연적으로 원격통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제'를 너무 악의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휴대전화의 통신기록을 통해,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통해, 인터넷 사용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외부로 알려진다. 설사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보안기술을 통해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개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마치 하버드 대학의 인트라넷에 접근하는 것



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다.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통제는 불가피하다. 철수가 다운받는 포르노 영화가 영희의 컴퓨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 다른 IP 어드레스가 주어져야 하고, 수많은 웹페이지의 주소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달라야 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세계의 모든 서버의 근본이 되는 이른바 루트 서버를 관리하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이들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적다는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발로우가 꿈꾸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완벽하게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빅 브라더의 음모이론을 들먹이는 것은 유치하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의 삶에 매우 중대한 일부를 차지하는 현대기술시스템이 시민들의 판단이나 지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상당히 오랫동안 영위해왔던 자급자족의 삶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상황은 매우 예외적이다.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인간이 되고, 사회는 소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사회를 이루는 소통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통해 인간을 바꾼다. 현대과학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삶이 무엇인가를 물을 뿐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만들고, 어떻게 사회를 조직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각종 정보가 시공간을 마구 넘나드는 세상에도 철학의 질문은 반복된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